

2020학년도 편입학 전공적성평가 문제

2020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편입학 전공적성평가	모집단위	국사학과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

1. 2000년대에 들어 학계에서는 이른바 ‘고종시대 논쟁’이란 것이 있었다. 주요 논점은 고종이 근대적 개명군주인지 성리학적 봉건군주인지, 또 고종의 근대화 노력을 평가해야 할지 아니면 고종에게 망국의 책임을 물어야 할지 등이었다. 이 논쟁의 의미와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.

2. 다음 인용 자료를 낭독하고 견해를 밝히시오.

“1. 國史의 意義

國史는 말할 것도 없이 過去 우리 民族이 어떻게 發展(발전)하여, 즉 어떠한 經路(경로)를 밟아 오늘의 現狀(현상)에 이르렀는가를 研究하는 學問이다. 흐르는 물에 波瀾屈曲(파란굴곡)이 있음과 같이 人間(인간)歷史에도 그러한 變化(변화)가 거듭하여 있다. 더욱이 歷史的인 民族은 自己(자기)保全 自己發展(자기발전) 自己向上(자기향상)을 위해서 自己自體(자기자체) 내의 協助(협조)와 相勸(상극)이 있을 뿐 아니라, 다른 나라 다른 民族과의 頻數(빈삭)한 接觸(접촉)과 交涉에서, 그 生活의 內容을 더욱 豐富(풍부)히 하면서 늘 보다 나은 데로 새로운 것에도 指向發展(지향발전)하는 것이다. 그러므로 一國一民族의 歷史를 研究함에는 그 關係(관계)民族 關係(관계) 國家와의 關聯性(관련성) 내지 世界史的 共通性(공통성)을 考慮(고려)해 가지고 그 自體(자체)의 特殊性(특수성)을 밝혀야 한다. 우리도 自己自體(자기자체) 內의 協助(협조)와 相勸(상극) 외에도 周圍(주위) 諸(제) 民族과의 不絶(부절)한 接觸鬭爭(접촉투쟁)에서 民族社會를 維持發展(유지발전)하여 온 歷史的인 民族이므로 國史 역시 그러한 點(점)에 注意하여야 하며, 決(결)코 孤立的 標本(표본)으로 研究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.” (『國史와 指導理念』 중 「總說」에서)